

오직 성경, 바른 복음전파에 헌신 다짐

2019년 시무예배 및 신년하례식, 덕담 주고받으며 사랑의 교제



기관장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러졌다.

이날 시무예배는 총회장 임용제 목사의 사회, 전직부총회장 정부용 목사의 대표기도, 부총회장 엄기설 목사의 성경봉독, 정책위원회 조용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부용 목사는 새로운 한해를 하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마지막 때 바른 복음을 전파케 하시며 마지막 때 시대와 사회를 밝히는 역할을 감당케 해주실 것을 간구했다.

조용목 목사는 벤전 5:8-9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토지측량에도 기점이 있어서 기준으로 하는 점이 잘못되면 토지측량을 바르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목회의 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잘못 되어 있으면 모든 수고와 헛된 것이 되고 만다"고 전한 뒤 "교단, 교회, 목회자, 성도 모두 성경을 기점으로 하여야하며 복음전도자의 핵심사명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전파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계속해서 특별기도로 '나라와 민생안정을 위해',



'교단발전과 개교회 부흥을 위해', '성령충만한 사역을 위해' 교단 증경총회장 김용덕 목사, 증경총회장 김상용 목사, 직전총회장 김양인 목사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이날 예배는 교단 총무 신재영 목사의 한글기도, 사회자의 광고, 증경총회장 임종달 목사의 축도로 예

배를 모두 마쳤다.

곧바로 총회장 임용제 목사 인도로 이어진 신년 하례식에서는 교단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헌신해준 회원 서로를 격려하고 참석자들은 선후배 동역자들에게 서로 뜨거운 박수로 격려의 마음을 전하고 새해 덕담을 주고받았다.



제67차 총회 제4회 실행위원회

오전 후 오후 1시 제67차 총회 제4회 실행위원회가 증경총회장 이용주 목사의 개회기도로 시작되어 최근 진행 중인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앞으로 진행될 일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총회장 임용제 목사 주제로 진행된 실행위원회는 서기 이정진 목사의 회원점명 후 개회선언, 전 회회 록남독, 총무보고가 이어졌다.

총무 신재영 목사의 총무보고, 재무 이은승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조병희 목사의 지출보고가 있었으며 교단발전기금 납부 현황 보고, 교회기입 청원, 교역자 기입 청원, 교역자전출입 청원, 교회전출입 청원, 교회명칭변경 보고, 전도사임명 청원 등 각종 결의사항 등이 처리되었다. 기타사항으로 2월 11일(월)과 12일(화) 실시되는 목사고시 안내 등의 사항이 보고되었다.



임원배석



총회장 신년사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감당하기 몹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사악한 귀신의 휘장으로 주의 복음을 편만히 증거 하기가 몹시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룩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에 속한 선후배 회원 목사님들의 강력한 기도도와 후원으로 승리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해를 맞아 제67차 총회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기원

어 각 지방회 교회마다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 통합교단을 이합하여 이합집산의 행태를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진리의 편에 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목회자님들께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몸 된 기독교 교회를 휘파람하러는 세력들이 정부의 기관과 비기독교단체와 결탁하여 동성애 옹호, 성 평등 정책, 종교탄압,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시도하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제정하려는 시도에 초교파적으로 대처하여 주신 지방회장님께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교단은 어떤 경우에도 말씀과 성령에

근거한 목회를 최상의 목표로 해서 종교다원주의와 이를 동조한 세력과 타협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저 북한 땅에도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지도자가 세워져서 70년 동안 무서운 탄압 속에 매여 있는 우리 형제들이 속히 해방되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새해를 맞아 거룩한 우리 교단 회원교회와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2019년 1월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임용제 목사 드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조용목 목사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 22:19~21)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의 영향을 받아 지음 받았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생물은 명령하시는 것으로 지으시고 생명체가 되게 하셨으나, 인간의 경우는 그 육체를 직접 지으셨으며 직접 숨을 불어넣음으로 영적 생명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영혼과 육신이 모두 귀중하지만 우선으로 여겨야 할 것은 영혼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사고나 질병이나 늙음으로 인하여 죽게 되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고 육체를 떠나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육체를 가진 영혼이라는 사실과 본질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관리하는 권한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주신 권한은 상대적인 것일 뿐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탄의 꾀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창지기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나선 것입니다. 그후 죄인이 된 아담의 후손 모두가 본질상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영혼은 결국 지옥행렬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행렬을 받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죄인들에게 지극히 복되고 기쁜 소식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시므로 믿는 모든 자들이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으며 천국에서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하여 더 큰 복과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복과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과 마귀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열릴 때에 불에 녹아지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도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리고는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은 새 예루살렘을 성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도들은 부활하고 변화된 몸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의미하는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삶에 활기와 기쁨을 주는 요인이 되며 인생길에 직면하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며 약속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있고 천사들이 예고한 말씀이 있으며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신약성경에만도 300여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야말로 신약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재림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의 원리들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는 것을 재림의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오소절 성령강림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성경에 배치되는 것이며 자의적으로 해석한 그릇된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이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셔서 만민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도들을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몸이 부활하게 되고 살아 있는 자의 몸도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함께 영광 중에 주님을 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면류관을 받으며 그의 행한 대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하여 알지 못하거나 왜곡된 지식을 가지는 것보다 더 해로운 것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세상에 오셔서 대속사역을 완수하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할 뿐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그 날에 경탄하게 될 일들을 생각하므로 즐거움과 소망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포토뉴스



교단 제67차 총회 제9회 임원회가 지난 1월 7일(월) 실행위원회를 마치고 교단 총회장실에서 열려 교회기입 청원, 교역자가입 청원 건 등과 2019 목사고시 외 주요화무를 처리했다.

총회신학교 후원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후원회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한국기독교연합 “한국교회연합”으로 환원

제8-1차 실행위 임시총회 열어 정관 개정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연합이 다시 창립 당시 본래의 명칭인 “한국교회연합”으로 환원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은 구랍 27일(목) 오전 11시 군포제일교회 에덴홀에서 제8-1차 실행위원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명칭을 “한국기독교연합(KACO)”에서 “한국교회연합(CCIK)”으로 변경하는 정관 제1조의 개정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로써 한교연은 지난해 8월 한교총과의 통합 창립총회 이후 “한국기독교연합”으로 명칭을 변경했다가 1년여 만에 본래의 이름으로 돌아왔다.

한교연으로의 명칭 변경은 지난 제7회 동안 한교총과의 통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으나 결국 무산이 된 상태에서 더 이상 한기연이란 이름을 유지할 이유와 명분이 없다는 다수의 임원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 제8-1차 임원회에서 정관 개정이 발의돼 이날 실행위원회



행위원회를 거쳐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또한 원종분 목사(예장 통합교회 전 증경총회장), 박요한 목사(예장 합동교회 총회장), 김효종 목사(예장 호헌 총회장)를 상임회장으로 만장일치 박수로 선출했다.

한교연은 지난 제8회 총회에서 대표회장

의 1년 연임 규정과 아울러 상임회장이자 동시에 차기 대표회장후보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상임회장을 3인 이하로 선출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할 바 있다.

상임회장 원종분牧사는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러시아고려대학교 사회복자학 명예박사, 버지니아크리스찬대학교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기총, 임원회 열고 총회준비

제30회 정기총회는 2019년 1월 29일(화) 오전 11시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이하 한기총)는 구랍 21일(금) 오전 11시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제29-8차 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회의는 회원점명 결과 27명 참석, 8명 위임으로 성수가 되었고, 개회선언, 전회의록 채택, 경과 및 사업보고와 안건토의가 이어졌다.

제30회 정기총회는 2019년 1월 29일(화) 오전 11시에 하기로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제25대 대표회장 선거를 준비하도록 했다. 조사위원회 보고의 건으로 현재까지 재정소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그대로 받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상 고발조치를 하기로 했다. 징계소

위원회에서 징계를 요청한 이종 가입 교단의 건은 보류하기로 했다.

기타 안건으로 한기총을 상대로 한 고소 고발 건은 대표회장과 사무총장에게 위임해서 대응하고 처리하도록 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는 김상진 목사(공동회장)가 기도했고,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의 말씀증거가 있었으며 각종 회무처리 후 이승렬 목사(명예회장)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세기총, 성탄절 맞아 예수님 사랑 전해

이주민봉사단과 함께 노숙자 및 어르신들을 섬겨

(사)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목사, 이하 세기총)는 구랍 28일(수) 오전 11시 서울역 소재 (사)해돋는마음(신생교회)에서 세기총 임원들과 이주민봉사단(다문화가정) 및 자원봉사자 등 약 30여 명이 함께 하여 노숙자 및 어르신들을 섬기는 봉사를 가졌다.

이날 사랑 나눔예배는 김동근 장로(공

기독교총연합신교회 회장, 본회 상임회장의 대표기도, 영광교회 윤유영, 윤서영 자매의 봉헌찬송과 특별찬송, 나독한 장로(본회 감사)의 봉헌기도에 이어 세기총 상임회장인 윤보환 감독이 록 2:14 말씀을 본문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정서영 목사(세기총 대표회장)가 격려사를 전했다. 세기총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세기총

소개 및 지원 봉사자로 참여한 이주민봉사단 및 세기총 임원들의 소개가 있은 후 설교자 윤보환 감독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세기총 상임회장 윤보환 감독은 설교를 통해 “모두가 아름다운 사람들이지만 성탄절을 맞이하여 각박해져 가는 세상 가운데 완전한 나침반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믿고 전하는 십자가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이어 격려사에서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에겐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기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좋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였으며 봉사하러 나온 다문화가족들에게도 매년 섬기는 모습과 그 배려에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예총연, 2019 신년하례예배...하나님을 기쁘시게

기교협·신학협·선교협 중심으로 사명감당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회(대표회장 강용희 목사는 지난 1월 3일(목) 오전 11시 여전도회관 루이스기념관에서 2019년 신년하례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하는 연합회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상임회장 우정은 목사 사회로 상임회장 장정애 목사의 기도, 상임회장 홍종실 목사의 성경봉독, 예총연 임원일동의 특송, 대표회장 강용희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했다.

강용희 목사는 이날 요일 3:13-18 말씀을 본문으로 ‘오직 행함과 진실로 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뭉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참음과 온유와 겸손함으로 남을 탓하지 말고 나를 돌아봐야 한다. 우리 예총연 26개 단체가 한바탕 되어 일을 한다면 못할 일이 없다.”며, “근면한 기교협·신학협·선교협 세 날개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고문 유순임 목사는 격려사를 통해 “우리 예총연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민족의 동물이 되어 북녘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단체가 되자.”고 격려했다. 계속된 예배는 특별기도시간을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합동비전총회 총회장 송수자 목사가, ‘한국

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하여’ 아가페총회 총회장 함배옥 목사가, ‘예총연과 28개 총회와 단체를 위하여’ 합동전례보수총회 총회장 고수영 목사가, ‘기독교교회제모습찾기협의회의를 위하여’ 기교협 총무 김선영 목사가, ‘신학협의회의를 위하여’ 신학협 총무 문인주 목사가, ‘선교협의회의를 위하여’ 선교협 총무 하예선 목사가 각각 기도를 인도했다.



송파기독교연합회, 신임 안경순 대표회장 선출

화합하는 송파기독교연합회가 되기를 소망

서울송파기독교연합회 ‘2018년 성탄 축하예배 및 제24차 정기총회’가 구랍 27일 오후 6시 서울 송파구청 강당에서 개최되어 신임 대표회장에 안경순 목사를 선출하는 등 사랑하고 화합하는 송파구의 기독교연합회가 되길 비쳤다.

이날 성탄 축하예배는 고문 노원수 목사(거성교회)의 사회로 고문 백광진 목사(삼일동교회)의 기도, 황대성 집사(송파구청신우회장의 성경봉독, 대표회장 유병서 목사(성원교회)의 ‘탄생! 새로운 역사의 출발’이란 제목의 설교, 성원교회 찬양대의 찬양, 송파구청교구협의회에 성금전달식, 총무 최호섭 목사의 광고, 직전회장 유병용 목사(브니엘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 제24차 정기총회에는 교구실장 김학규 목사(행복한교회)의 기도와 서기 김승언 목사의 전 회의를 남독, 대표회장 유병서 목사와 총무 최호섭 목사의 업무보고, 각부 및 협의회 등의 사업보고 등으로 진행했다.

임원개선은 대표회장 지명에 의해 전형위원을 선임해 진행했다. 전형위원 선임 후 잠시 정회된 총회는 오후 8시 속개되어 전형위원장 유병용 목사(브니엘교회)가 추천된 신임 임원들을 발표했다.

세선협 제132차 월례회, 풍성한교회에서 개최

필리핀 단기선교 3월, 6월, 11월에 갖기로



세계선교협의회(회장 한규석 목사, 이하 세선협) 제132차 월례회가 구랍 27일(목) 오전 11시에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279-1번지에 위치한 풍성한교회(담임 조희영 목사)

에서 1부 예배, 2부 회의 순으로 진행했다. 제1부 예배는 조희영 목사(풍성한교회)의 인도로 천근와 장로(영원교회)의 대표기도, 김서경 목사가 주어진 지난 밤 내 꿈에 특송

하고, 이혜자 목사(시온교회)가 학 2:3-9 말씀을 본문으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며 “세선협을 하나님에 임전 사랑하신다”고 전제하고 “첫째, 너는 스스로 공에게 하라. 둘째,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셋째, 이곳에 평강을 주신다”고 전했다.

손명의 전도사(성광교회)가 헌금기도 하고 조희영 목사가 ▲나라의 안보와 경제 발전을 위하여, ▲세선협 부흥과 동남학원 학생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선협 회원들과 각 기회를 위하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한 후 회장을 한규석 목사(남동제일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나라사랑국민연합 구국기도회

나라와 안정과 발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

나라사랑국민연합(대표회장 한정수 목사 /이하 나사랑)은 구랍 22일 오후 종로구 여전도회관에서 나라사랑 구국기도회를 갖고 나라와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기도회는 세미나도 함께 열렸으며,

1부 세미나는 고종욱 장로(한국시민사회단체연합 총재)가 ‘그리스도인의 사교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인도했다. 2부 예배는 대표회장 한정수 목사의 사회로 이현구 장로(세례대학교 총장)의 대표기도, 이재윤 장로(중앙대 명예교수)의 성경봉독, 채연희 찬양사

역자의 특송, 피종진 목사(남서울중앙교회 원로)의 사 32:15-20 말씀을 본문으로 한 ‘광야가 밭이 되리라’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했다. 이어진 주례 기도시간은 이 상렬 장로가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류은옥 장로가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위하여, 이경욱 장로가 경제인들과 기업들을 위하여, 황영웅 목사가 ‘교회와 기독교기관을 위하여’, 홍태드로 목사가 나라사랑국민연합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를 인도했다.

3부 기도회는 대표회장 한정수 목사의 인도로 ‘나라와 민족’, ‘대통령과 정치인’, ‘기독교기관과 대표’, ‘한국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 합심기도를 갖고 나라의 발전과 한국국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를 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정기영 목사)는 지난 2018년 12월 27(목) 오후 12시 태종대 목장 원 오제담 부패에서 송년회를 가졌다.

증경회장 박용호 목사(오일순복음교회)의 기도와 총무 김태주 목사(순복음부산우리교회)의 한 해 행사보고 후 지방회장 정기영 목사(순복음세움교회)가 한 해 동안 지방회의 범사에 한 마음이 되어 협력하고 동참해 준 회원동역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전한 후, 증경회장 한명집 목사(은혜와평화교회)의 식사기도 순으로 이어졌다.

맛있는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누는 후에는



각자 가져온 선물을 추천하여 나누어지며 즐겁고 아름다운 시간이 가득한 시간을 보냈다. 이어 교단의 발전과 지방회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개교회 부흥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한 후 신년하례 예배를 기약하며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갔다.

호남지방회

호남지방회(회장 서베드로 목사)는 지난 1월 7일(월) 오전 11시 순복음은혜교회에서 신년하례회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총무 현기봉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회계 민순복 목사의 대표기도, 서기 홍광희 목사의 성경봉독, 지방회 증경회장 왕상엽 목사(순복음은혜교회)의 특송, 증경회장 조남연 목사(순복음송죽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본문 4:7-11 말씀을 본문으로 ‘청지기의 사명’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근신하고 기도에 합할 것”을 강조하며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것이니 겸손하게 봉사하며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범사에 예수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종의 본분은 오직 하나님의 선한 청지



기의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의 참뜻을 따르는 것이란”고 전하였다.

이어 지방회 증경회장 김정구 목사(월양순복음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증경회장 왕상엽 목사(순복음은혜교회)가 총회와

지방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지방회장 서베드로 목사(목포시내산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순복음은혜교회에서 준비한 애잔을 나누고 웃음을 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진 후 각지의 사역지로 돌아갔다.

이목교회 장로 장립 및 명예권사 추대 임직예배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오병용 목사)는 지난 2018년 12월 25일(화) 오후 3시 이목순복음교회(담임 이복근 목사) 장로 장립 및 명예권사 추대 임직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용 목사(증평새희망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지방회 부회장 김경준 목사(순복음후영교회)의 대표기도, 서기 신병설 목사(주사랑순복음교회)의 성경봉독, 교단 증경총회장 김상용 목사(청주중앙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김 목사는 엡 4:11-16 말씀을 본문으로

로 한 설교를 통해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주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고 봉사 일을 하라고 주셨기에 직분을 맡은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하며, 순종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하고, 주의 종을 잘 따르고 존경하고 협력하는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고 축복했다.

이어 2부 장로 장립식은 담임 이복근 목사가 진행, 김종환 장로가 지방회 안수 위원(위원장 오병용 목사, 위원 김상용 목사, 윤경현 목사, 이복근 목사, 김윤용 목사, 이동수 목사)의 안수를 받고, 증서와 축하 임직패, 축하 꽃다발을 받았으며, 3부 명예권사 추대식에서는 강옥진, 신태수, 정영자, 송재수, 정영옥, 이정순, 이종옥, 이자남, 구농진, 변부미, 신영자, 김명자, 배상예, 장복례, 권영진, 김선,

노숙자, 유창순, 허민희, 박화용 등 20명의 명예권사가 추대되었다.

4부 권면 및 축하에서는 지방회 총무 김용 목사의 진행으로 윤경현 목사(은순복음교회), 김정수 목사(부강순복음교회)의 권면, 김윤용 목사(증평순복음교회), 이동수 목사(한희순복음교회)의 축사가 있었으며, 이어 끝까지 찬양단의 축가와 손대현 목사(오동교회)의 축하연주가 있었고, 임직 받은 김종환 장로의 인사 및 광고 후 지방회 증경회장 최동순 목사(삼산순복음교회)의 축도로 장로 장립 및 명예권사 추대식을 예배를 은혜롭게 마치고 이목순복음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함께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눴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안내

은혜와진리교회 부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는 결혼 적령기 크리스천 미혼 남녀가 주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돕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께서 기뻐하시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감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에 신청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 및 개인 정보는 담당자만 볼 수 있고 비밀이 보장되며, 일체의 비용도 없습니다. 본교회 성도는 물론 본교단 산하 교회 성도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 상 : 결혼 적령기 남녀 성도
- 신 청 : ① 센터(안양성전 행복한결혼정보센터)에 직접 신청
④ 각 성전 교구장 통해 신청
⑤ 은혜와진리교회 홈페이지 (www.gntc.net) 통해 온라인 신청
- 상담시간 : 매주 주일 오전 11시~오후 5시
매주 수요일 낮 12시~오후 5시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458-5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 사무실 031-422-3735, 상담소장 010-4377-2842)

말씀충만 소망충만, 송구영신예배...조용목 목사 신년메시지

“지혜롭고 올바르게 좋은 선택을 합시다.”...“주 안에서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한 해 기원”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18년 한 해 동안 갖가지 핍박과 유혹을 이겨내고 성도답게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도하고 행하며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2019년 새해 복스런 삶을 기원하는 은혜와진리교회 송구영신예배가 2018년 12월 31일 밤 말씀충만, 감사와 소망 충만한 가운데 드려졌다.

이른 저녁부터 성도들이 교회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찬양의 메시야 공연 등 성전별 다채로운 송년 찬양행사에 이어 10시 30분에 예배가 시작되었다.

성도들은 그동안 베푸신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찬송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행지 못하고 힘을 다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이어서 은혜와 권능의 말씀을 받고 새해에 이를 적극 실천궁행하모로 하나님의영광을 크게 나타내게되기를 기원하였다.

당회장 조용목 목사는 신 30:19, 20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지혜롭고 올바르게 좋은 선택을 합시다”라는 제목의 신년 메시지를 선포하였다.

조용목 목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마지막에 만드신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로 복과 선택에 관한 것이고 타락한 인생을 향한 첫 경고와 교훈은 지혜롭고 올바르게 좋은 선택을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생명과 복을 택하라고 하였다. 사람은 누구든 생명과 복을 소유하고 누릴기를 바란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의 생각과 행동에서 그 반대되는 사망과 저주에 속한 것을 택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조 목사는 이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

과 복을 택하는 것인가”를 자세히 말씀하고 성도들을 축복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미 지혜롭고 올바르게 좋은 선택을 하신 분들입니다. 생명과 복을 택하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새해에는 생명과 복을 선택한 사람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부종하기를 힘써 더욱 굳게 하고, 그 깊이가 더해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의지적 선택과 관계없이, 주어진 모든 운명이나 우연이라고 부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기에 제한되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이 결국에는 생명과 복에 속한 것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큰 위로와 격려를 받고 주신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다.

계속해서 나라와 교회의 안녕과 발전을 해치는 자들의 도모가 허사가 되고 국가안보가 튼튼해지도록, 해외 선교사들과 선교협력회를 위해,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 교회의 목표를 이루는 일에 깊이 참여하고 헌신하게 되기를 바라며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2019년 새해가 되자 성도들은 주 안에서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한 해가 되도록 서로를 축복하며 예배를 마쳤다.

한편 송구영신예배가 시작되기 전 각 성전에서 다채로운 송년 찬양행사가 열렸다. 구립 28일(금) 밤 안산성전에서 GNTC합창단의 찬양의 메시야 공연을 시작으로, 30일(주)에는 안양성전 대성전 로비에서 GNTC-TV의 ‘이야기가 있는 찬양’ 미니 콘서트가 열렸다.



이어서 31일(월) 밤에는 안양성전에서 실로암, 엘림, 갈릴리성가대가 GNTC오케스트라와 협연한 ‘송년 찬양의 밤’ 메시야 연주회 가, 수

원성전에서 장로합창단과 레위찬양대, 관현악단, 국내선교연합회, 초등부, 소프라노 전국영지회지가출연한 ‘송구영신찬양의 밤’이 열리

는 등 여러 성전에서 찬양행사가 펼쳐져 성도들은 찬양의 은혜와 감동을 나누며 예배에 열의가 높았다.



생명의 말씀



강 태 진 목사

· 대구 경북지방회 중경회장
· 안동성공교회 담임

인생은 반드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성경은 가장 중요한 기회를 잡은 사람들과 놓친 사람들의 스토리입니다. 성경은 인생이 알아 할 최고의 진리입니다. 성경은 나를 위한 나의 책이며, 나를 가장 잘 보여주는 내 인생의 거울입니다. 성경을 보면 내 과거가 보이고 내 현재도 보이고 내 미래도 보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명의 어부였던 베드로, 그전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장면의 기록입니다. 그날 따라 고기가 전혀 안 잡히는 날입니다. 새벽까지 잡은 것이 없이 이제는 그물을 찢고 있었습니 다. 그 이른 시간에 군중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빈 배를 잠시 빌려 달라고 요청하시고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다 전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밤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말은 상식에는 맞지 않는 일이지만 말씀에 순종해 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 결과 과거가 어떻게 되었나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까지 도와 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눅 5:6-7)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반응이 중요합니 다. 빈 배가 만전이 되었으니 감사하고 사례를 해야하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자신이 누군지 고백하는 말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말은 나를 떠나 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절에 있기에 너무나 두려운 분이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그들이란 그 광경을 지켜본 세 사람도 함께 따라갑니다.

기회와 결단

(눅 5:4-11)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전혀 다른 삶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밤새 수고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분, 비로소 나는 내 인생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은 물고기만 전부였고 먹고 사는 것이 전부였고, 왜 사는지 모르고 허둥대며 살았는데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지만 인간의 힘으로 해결 안되는 문제는 더 많아졌습니다. 생활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가정의 문제입니다. 가정의 붕괴, 탈선, 이혼 등, 저 만큼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특정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련 문제는 정답이 있지만 인생 문제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답을 가지고 베드로를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그분이 부르시면 천지는 일체히 섭니다. “괴연 내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펴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체히 서느니라” (사 48:13)

요즈음 자연이 무섭다고들 말합니다. 쓰나미, 해일, 성경은 파도를 하나님의 콧김때문이라고 합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쏘이

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물이 바다 가운데 임기니이다” (창 15:8)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린 신앙고백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인생의 뿌리는 원숭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부모를 거스름이 인륜을 범한 죄라면 하나님을 거스름은 천륜을 범한 죄입니다. 죄중의 죄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악에 대하여 침묵하십니까? 공권력은 범죄자보다 훨씬 강하지만 범죄는 항상 먼저 일어나고 공권력으로 사후에 수습하는 모양새입니다. IS가 프랑스보다 약해도 사고를 일으키니 프랑스가 가혹하게 응징하는 것입니다. 악이 횡행해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십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벧후 3:8-11)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나” (히 9:27) 이 세상의 삶을 가장 공의롭게 판결할 때가 옵니다.

하루살이는 불빛이 현린하면 그제 죽는 길인줄 모르고 달려듭니다. 하루살이처럼

사는 인생을 주변에서 보게됩니다. 자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뿐으로 생각합니까? 그것은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고 하늘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죽으면 그뿐으로 알고 있다보니 너무 쉽게 자살합니다. 가정에 이미 성범죄가 깊숙이 들어와있습니다. 때로는 술, 마약, 도박, 게임, 쇼핑중독, 일중독에 빠져 삽니다. 어떻게 하하겠다는 것입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약 4:14) 인생은 세상이라는 지뢰밭을 지나갑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무대책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합니까? 이제는 여기쯤에서 멈추어 서서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 90:10) 내게 주어진 가장 확실한 나의 시간은 지금, 바로 이 시간 뿐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후 6:2)

“내가 이후로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 2:9)

동 정

황교안 “北 비핵화 지속제재 필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3일(목) 워싱턴 워싱턴에서 열린 1300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한반도 안보와 경제 현안에 대한 강연을 전하며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우하시 우리나라 만세가 될 것”이라며 “북핵에 대하여 지속적인 제재로 한반도비핵화가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탈동성애 헌신 다짐



동성애 치유회복 대표인 홀리라이프(대표 이요나 목사)는 지난 1월 6일(주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언주로 감보리채플서울교회에서 ‘제5회 홀리 토크’ (HOLY TALK)를 개최하고 탈동성애를 위해 각종 자료를 제공하는 등 동성애자들의 탈동성애를 돕는데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홀리라이프는 “오직 진리 안의 교제로서 은혜를 나누며, 훈련된 탈동성애 사역자들을 파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기종, 대표회장에 강성봉 목사



고양시 복음회를 목적으로 교회연합사업에 전력하고 있는 고양시 기독교총연합회(이하 고기총)가 지난 2018년 12월 20일(목) 고양시 주엽동 일산새중앙교회(담임 강성봉 목사)에서 제5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대표회장에 강성봉 목사를 추대했다. 고기총은 오는 1월 24일(목) 일산새중앙교회에서 대표회장 이취임예배를 드린다.

미 북한인권위, 인권유린 지적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C) 그레그 스칼라티(Greg Scarlatoiu) 사무총장은 “북한이 정치범수용소에서 자행하고 있는 인권유린과 비인간적 범죄가 심각하다”고 했다. 특히 그는 “오픈도어즈에 따르면 정치범수용소 12만여 명 중 기독교신자가 4분의 1, 말게는 3분의 1에 달한다”고 했다. 3~4만 명에 이르는 기독교인들이 수용소에 갇혀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대국민 홍보가 아니라, 우리 정부는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

현 정부는 남북문제에 있어 그 어느 정부보다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야말로 정부의 모든 역량과 운명을 기울 정도이다. 그러다 보니 집착에 가깝다. 남북의 평화가 가져오는 효과가 그만큼 큰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쌍방의 긴밀한 협력과 때로는 양보와 상호 동의 없이는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다.

북한의 국무위원장은 1월 1일 평양방송을 통해 신년사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을 통하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 관계 확대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환영한다’고 하였다.

신년사는 평양에서 9시에 발표했는데, 한국의 공영방송인 KBS는 9시 30분에 이를 받아서 뉴스로 다룰 정도로 신속하였다. 북한의 신년사에 관심이 가는 것은, 북한의 속내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발표한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라는 천명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길’을 주장하여 그 속내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였으며, 발표 내용만으로는 그 실상과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

분도 있다.

북측은 자신들이 ‘추가적인 핵무기의 생산과 배치 등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는 이미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 것을 천명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또 외세와의 합동군사훈련 중단과 전쟁 준비를 반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되면 남북 간의 군사적 비대칭은 자명해 가는 것이 되는데 어떤 노림수가 있는 것인가?

그러므로 이번에 북측이 발표한 신년사를 종합하면 자신들의 핵을 실제적으로 폐기할 뜻은 없고, 이미 갖추고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국제간에 여러 협력과 협상용으로 쓸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뿐

만 아니라, 한국 측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쓸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북측이 발표한 신년사에서 진정성을 갖추려면 그들은 먼저 핵 신고를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해야 하고, 전 세계를 위협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파괴해야 하며, 국제적인 비핵화 일정에 당사자국 간에 협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나 주요 언론들은 북한의 입장을 환영하고, 그들의 홍보 매체처럼 보도하였다. 그로 인하여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또 정부 당국자들도 방송에 출연하여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

진 정부 책임자로서의 북한에 대한 정당한 요청도 유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하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냉정할 필요가 있다.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생각, 행보, 그리고 확실한지도 분명한 합의, 그 합의 된 것에 대한 실행 프로그램이 정확히 작동되어야 한다.

실효성도 없이 마치 북한의 태도가 진전된 것과 같은 착시(錯視)현상에 속아서는 안 된다. 남북평화의 시계는 같이 움직여야하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평화적 시간의 움직임으로 보면 안 된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9년도 목사고시 공고

2019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 류 접 수 : ① 일시: 2018. 8. 31(금)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 지방회임원회 심의→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12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2. 서 류 심 사 : ① 일시: 2018. 9. 06(목) 오전1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3.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2018. 9. 20(목)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본부

4. 목사고시료 : ① 납부일: 2018. 8. 31(금)까지 ② 금액: 50만원

③ 입금계좌 :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5. 목사고시 : ① 일시: 2019. 2. 11(월)~12(화)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목회대학원 강의실

6. 전도사 경력 계산은 만으로 하되, 계산일은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7. 직장파 목사직은 겸할 수 없으므로 직장을 가진 자는 목사고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8. 목사고시 응시 자격은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서류심사 이후에는 목사고시 서류일체와 고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임웅재 고 시 위 원 장 목사 김인규
총 무 목사 신재영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이석호

초점

동성애 홍위병 뉴스엔조이 규탄

뉴스엔조이(이하 뉴조)는 국내 언론 가운데 동성애를 가장 옹호하며, 동성에 반대 활동을 대하여 강한 적의를 품고 온갖 악의적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동성에 홍위병으로서 뉴조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모든 주장이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에 한겨레신문에 제 공함으로써 동성애를 반대하는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퀴어신학을 이단이라 규정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한국교회를 조롱하고 온갖 독설을 쏟아 놓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교회를 향해 후원을 요청하는 것은 마치 조폭이 하는 것처럼 언론의 권력을 이용하여 앞으로는 겁박하며 뒤로는 돈을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편향된 이념에 따라 과학적 사실조차 부인하며, 한발적 거짓조차 도전할 뿐만 아니라, 동성에 홍위병이 되어서 언론의 주장을 들고 나선 뉴조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교회를 향해 작은 비리에도 흑독한 비판을 서슴지 않는 뉴조는 자신의 비리에 대하여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남을 향해 들고 있는 언론의 주장을 내려놓고 자신의 비리에 대하여 투명하게 밝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뉴조의 100 기자는 2018년 1년 동안 340여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그중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에 반대 활동을 비난하는 기사를 무려 87개를 작성하였다. 그중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지지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비난하는 기사를 7개를 작성하였는데, 그중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성탄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 등이 있다. 또 동성에 퀴어 행사를 적극 지지하고, 퀴어행사를 반대하는 활동을 비난하는 기사를 7개를 작성하였는데, “인전퀴어 축제 참가자들, 신체적 정신적 피해 극심”, “반동성애 개신교인들 또 퀴어축제 방해” 등의 기사를 작성하였다.

특히 100 기자는 기독교 교단들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임보라 목사를 옹호하는 기사를 7개를 작성하였는데, “백석대신, 통합, 임보라 목사에게 사과하라”, “이단이라 흔들어도 사랑이 이긴다” 등의 기사를 작성하였다. 또 한국교회의 동성에 반대 활동을 비난하는 기사를 14건이나 작성하였는데 “동성애가 무서운 교단들”, “보수 개신교회는 왜 동성에 혐오 최전선에 섰나”, “예장통합에 몰아치는 ‘반동성애 광풍’” 등의 기사를 작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100 기자는 지지체 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거나 폐지 운동하는 것을 비난하는 기사를 15건 작성하였으며,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차별과 혐오로 몰아기는 기사를 작성하였다.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지지하고,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상관관계조차 부인하는 기사를 작성하였다.

뉴조는 스스로 ‘한국교회를 깨우는 독립언론’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기독교의 교리를 정면 도전하고, 교회를 해체시키려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기반한 젠더 이데올로기를 강력히 주장

하고 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퀴어신학을 이단이라 규정한 한국교회를 조롱할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예수의 유일성조차 부인하는 기사를 서슴지 않고 싣고 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활동을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뉴조는 스스로 복음주의 언론이라 주장하는 궤변을 서슴지 않고 있다.

뉴조를 포함한 동성에 옹호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위 젠더 이데올로기에 편승하여, 사람의 성은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면서 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생물학적 성을 부인하고 사회적 성을 주장하면서, 양성평등을 부인하고 성평등을 주장하고 있다. 남자와 여자만으로 구성되는 가정을 부인하고, 동성결혼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주장하고 있다.

뉴조는 그동안 활동을 보면, 동성애를 옹호하며, 많은 시민단체와 한국교회의 동성에 반대 활동을 매우 강하게 비난해 왔다.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한국교회의 활동을 한겨레신문 등과 협력하여 가짜뉴스 프레임에 씌우려 하고 있다. 뉴조는 우리나라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퀴어신학을 주장하는 임보라 목사를 적극 옹호해 왔다. 과학적으로 분명히 밝혀진 사실조차 부인할 뿐만 아니라, 엄연한 팩트조차 왜곡하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활동을 가짜로 몰아거리 한 것은 편향된 이념에 매몰된 반지성적 활동이다.

예를 들면 동성 간 성접촉이 에이즈 감염의 주요 경로라는 것은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밝히고 있으며, 국내 연구진의 연구결과에 의해서도 밝혀졌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남성 간 성접촉이 에이즈 확산의 주요경로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것조차 부인하려는 뉴조는 정상적인 언론매체가 아니라,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과학적 팩트조차 인정하지 않는 반지성 이념집단임이 분명하다.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 사이에 동성애가 폭증하고 있고, 그에 따라 청소년 에이즈 감염이 폭증하고 있는데, 이를 왜곡하는 뉴조는 기독교 언론은 고사하고 건강 한 언론 매체의 역할조차 포기한 것이다.

뉴조는 “교회 개혁 저널리즘 함께할 1,000개 교회 찾습니다”를 광고하며 후원교회를 찾고 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신학을 이단이라 규정하면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활동을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한국교회를 향해 후원을 요청하는 뉴조의 후안무치한 모습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것은 한국교회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뉴조는 비영리단체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뉴스엔조이 인터넷 도메인은 co.kr이 아니라 or.kr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조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온갖 광고가 붙어 있다.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or.kr 사이트에서 영업활동을 하려면 or.kr 도메인은 취소된다고 한다. 영업활동을 하려면 다른 언론 단체처럼 com을 사용하든지 co.kr 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뉴조는 비영리단체로 등록한 후에 수익활동을 하

면서 기부금도 받고 있다. 명칭이 어떠한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으로, 광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후원금을 권유하는 것은 기부금품의 모집에 해당되게 된다. 기부금품법은 금품의 모집이 구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자 만들어진 법으로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정부로부터 기부금품 모집을 등록하고 재정을 투명하게 밝히야 한다. 따라서 뉴조는 뉴조의 후원금 모집활동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것인지 분명히 밝히야 하고, 또 그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투명하게 밝히야 할 것이다.

뉴조는 한빛누리로부터 지난 4년간 약 10억 원을 받는 등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한빛누리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왔다. 한빛누리는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뉴조를 포함해서 트랜스젠더 단체나 퀴어신학을 지지하는 단체들을 조직적으로 지원하여 왔다. 한빛누리의 수십 개 단체들에 대한 지원규모는 매년 30여 억 원에 이른다. 한빛누리는 종교재단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출연된 재단 재산에 대한 증여세 탈세와 위법적 관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다.

뉴조는 자신들의 후원자들이 공익법인인 한빛누리 재좌로 우회 송금하게 하여 후원자들에게 종교단체 기부금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함으로 후원을 독려하여 왔다. 뉴조의 이러한 후원금 모금방식은 탈세를 위한 방식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든다.

한빛누리는 세법상 공익법인으로 후원자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에 대해 증여세 과세면제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뉴조는 한빛누리와 달리 세법상 공익법인이 아니다. 세법에 의하면 공익법인을 제외한 개인이나 단체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뉴조는 한빛누리를 통해 지난 10년 이상 지원받아 온 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 왔는지, 만약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명명백백히 소명하기 바란다.

만약 공익단체인 한빛누리를 통해 자금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지동적으로 증여세 면제 단체가 되었다고 생각해 온 것이라면, 뉴조는 한빛누리가 증여세 면제혜택을 줄지 여부를 결정하는 국가기관이라도 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자금을 받은 단체의 활동이 증여세 면제 대상에 해당될지 여부를 따져보지 않고 한빛누리를 통해 전해진 자금이 모두 증여세가 면제될 것이라 여겼다면 한빛누리가 세금세탁의 역할을 해온 것이라는 의혹이 든다.

이제 한국교회는 한국교회의 동성에 반대활동을 조롱하고, 이단으로 규정된 퀴어신학조차 옹호하고 있는 뉴조에 대하여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활동을 통해 정체가 밝혀진 뉴조에 대한 후원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국내 어떤 언론보다 강력히 동성애를 옹호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지지하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퀴어신학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동성에 반

논평

기독교계의 기생충 역할을 하는 뉴스엔조이는 교회를 향한 감성팔이 구걸을 중단하고 즉각 폐간하라!

중위소득은커녕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목회비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명 감당하는 수많은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있다.

갈수록 극단적 인본주의로 치닫는 세상 속에, 편향된 언론들이 합류듯 쏟아내는 반기독교적인 기사들로 세상 사람들의 반기독교적 정서도 갈수록 깊어져서, 교회들의 복음 사역이 얼마나 한겨워졌는지 모른다.

이런 기류에 편승해 세상 그 어떤 언론보다 더 독하게 기독교를 편향하고 모독하는 기사들로 교계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등지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해온 언론이 바로 '뉴스엔조이'이다.

교회를 합류는 뉴스엔조이 기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미자립교회들이 망가지고 파문물을 흘리고 있는데 반번스럽게 하나님 나라 운운하며 기독교계에 후원금을 요청하는 뉴스엔조이의 행태를 보노라니 후안무치가 따로 없다.

특정 교회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기사로 후원금을 갈취하고 그렇게 키워온 영향력으로 더 많은 교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아온 뉴스엔조이가 해 온 '와이 있는' 일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교회를 공격하고 복음사역을 위축시키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일 외에 어떤 일을 하였는가? 지칭 하나님의 일을 하였다는 주장이 어떻게 반박하게 나올 수 있는가?

개혁적 기독교 언론을 표방하는 뉴스엔조이가 그동안 보여준 개혁은 성경에 기초한 개혁이 아니고, 성경에 역행하는 마르크스적 개혁이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했듯이 눈곱만큼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함이 있다면 차마 쓰지 못할 기사들을 마구 쏟아놓고도 일말의 뉘우침도 없는 뉴스엔조이가 그동안 기독교계를 기만해 온 것도 모자라 또다시 동성애를 유발하는 감성팔이로 후원금을 요청하는 파렴치함에 의문을 금할 수가 없다.

무신론, 진화론에 미혹된 마르크스주의를 계승한 유럽발 글로벌 성혁명이 서구의 교회들을 강타하고 한국에까지 미수를 뻗치는 시대에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으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압박을 막고자 전문가들이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바쳐서 헌신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문 사역자들을 가짜뉴스 유포자'라고 매도하고, 주님도 말씀하신 알곡 아닌 가라 지에게만 초점 맞춰 기독교계를 추락시키는데 주력해온 뉴스엔조이는 기독교 언론 행세하면서 감성팔이로 후원을 구걸하는 사기 행각을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뉴스엔조이는 기독교계 안에 침투한 트로이 목마 역할을 이미 충분히 수행하였고 더 이상 감성팔이 연극은 보기에 너무 역겹다. 그동안 기독교계의 사람과 금화에 기생해온 기만적인 실체가 이미 분명하게 드러났기에, 앞으로는 뉴스엔조이 기자들의 정체성에 맞는 동성애 인권단체와 마르크시즘 추종 단체들을 향해 후원을 요청하면서 마르크시즘 언론임을 분명하게 밝히라. 뉴스엔조이는 더 이상 가짜 기독교 언론 행세를 하지 말고 교회를 향한 후원 요청을 중단하고 즉각 폐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양두구육의 정체가 확연히 밝혀진 뉴스엔조이에 막대한 헌금을 후원해 온 교회들과 단체 기독교 인사들은 죄과를 회개하고 지금이후로 더 이상 교회파괴범 뉴스엔조이에 단 한 톨도 후원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 12. 31

종교와언론자유수호를위한법국민연합, 한국교회진리사망연합회, 오직예수사랑선교회, Good & Faithful Ministry, 바른군인권연구소, 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 대한민국역사사랑이, 프리덤칼리자정학회, 자유연대자유민주국민연합, 300용사세계선교회, 반기독교세력대응협의회, 여성소리선한이웃봉사단, 한법을사랑하는국민연합, 생수선교회,자유사랑국민연합, 보신각한국교회나라살리기 회개기도운동본부, 동성애반대국민대책위원회, 일사각오전국목회자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국민연합, 전국학부모던체연합

대활동을 비난해 온 동성애 홍위병 뉴조를 강력히 규탄한다.

둘째, 편향된 이념에 사로잡혀 과학적 사실조차 부인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 사이에 에이즈가 폭증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조차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 동성애 홍위병 뉴조는 간단한 언론매체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어떤 취재에서도 제외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셋째, 뉴조는 인터넷을 통해 기부금을 모금한 법적 근거가 무엇이며, 기부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넷째, 뉴조의 정체가 분명히 밝혀진 가운데, 뉴조를 후원하고 있는 교회는 즉각 재정 후원을 중지할 것을 요청한다. 만약 재정 지원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후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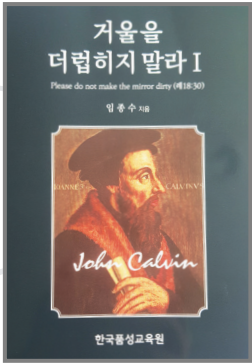
계속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보다 언론사의 겁박을 두려워하고 성경의 진리보다 세상 사상을 따르는 교회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동반연과 동반교연은 뉴조의 명백한 동성애 옹호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후원을 지속하는 교회 명단을 널리 공개할 것을 밝힌다.

다섯째, 한국의 주요 교단이 동성애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동성에 반대 활동을 공격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뉴조에 대하여 한국교회는 단호한 입장을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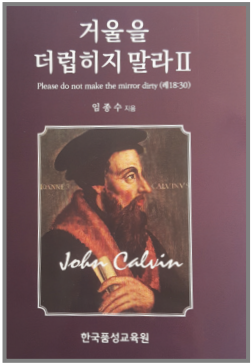
2018. 12. 26.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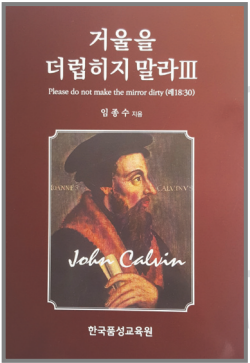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격, 덕성, 인격, 개성을 바울은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들 어낸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분 7가지와 자기 계발의 부분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 제2권 대인관계 부문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물리쳐야 할 세력들 즉 점과 굶,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척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헌장 두 권이 출판 될 것이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면만 강조하였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발에 고추를 따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 가는 영적훈련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2,3권을 소개한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중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그룹

책 구입처

csl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

주님께서서 함께하시는 2019년이 되기를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정기영 목사)는 지난 1월 8일(화) 순복음세움교회(담임 정기영 목사)에서 신년예배를 드리고 2019년 한해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릴 것을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다짐하였다.

이날 예배는 총무 김태주 목사(순복음부산우리교회)의 사회로 부회장 김경옥 목사(순복음하늘소망교회)의 대표기도, 재무 김연옥 목사(행복한선교교회)의 성경봉독, 중경지방회장 박용호 목사(오일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박 목사는 요 2:1~11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기도와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역시해 주시므로 모든 교회와 사역 위에 넘쳐난 새 포도주가 넘쳐나는 기적과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전하였다.

이어 서기 조은혜 목사(순복음빛된교회)의 헌금기도, 중경지방회장 한명진 목사(은혜와평화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고, 세움교회(담임 정기영 목사)에서 준비한 홍삼 삼계탕을 먹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모두의 건강과 교회의 부흥을 위한 덕담을 나눈 후, 부흥의 기쁜 소식을 서로가 전하기를 다짐하며 다음 월례회를 기약하였다.

새해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정진 다짐

경기북지방회

경기북지방회(회장 탁정신 목사)는 지난 1월 8일(화) 오전 10시 30분 분향교회(담임 강인덕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지방회 각종 회무를 처리하였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오세준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이경진 목사의 대표기도, 중경회장 김장수 목사의 롬 12:11~13 말씀을 본문으로 한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설교, 서기 육준수 목사의 헌금기도, 지방회장 탁정신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2부 월례회는 탁정신 목사의 진행으로 서기 재무 육준수 목사가 회원 점령 후 월례회 및 임원회의, 정책위원장 세미나 및 기도회



참석, 2018년 송년회 모임 등 지방회 행사를 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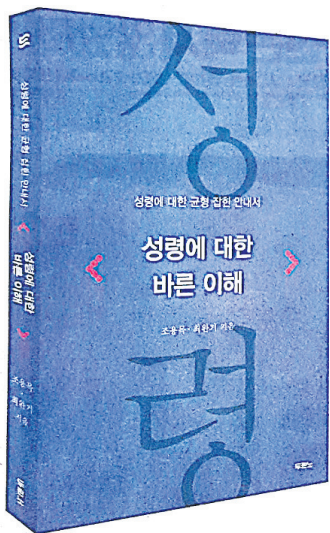
이어 총무 서기 보고, 재무 보고, 회계 오세준 목사의 회계 보고와 안전 토의 시

간을 갖고, 우광덕 목사의 폐회 기도으로 월례회를 마친 후에는 순복음분향교회에서 제공한 점심을 함께하며 다음 월례회를 기약하였다.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잘못 알고 오해했던 '성령론'을 바로 잡는 책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안내서



당신은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가르침으로 크고 작은 혼란을 야기해왔다. 이는 곧 성령의 바른 이해를 가린 채 은사주의, 변영신학으로 변질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했다. 이 책은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령론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균형 잡힌 지침서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성령충만한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왜 다시 '성령론'인가?

책을 집필하기 전 저자의 고민은 '이미 수다한 성령에 관한 책이 출간되어 읽혀지고 있는 이 때에, 굳이 또 한 권의 책이 출간될 필요가 있는가?'였다. 그럼에도 출간을 결심한 것은 '성도들의 성령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가장 큰 이유였다. 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유달리 성령에 대한 이해는 심지어 같은

교단이라 해도 다른 견해를 가지곤 한다. '성령세례'와 '방언', '신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심하게 왜곡될 경우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빠질 수 있기에, '성령론'의 연구와 올바른 안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은 성령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성령은 힘이냐 능력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저자는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령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했고, 이는 태초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성령은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늘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이다. 이밖에도 '성령충만'의 올바른 이해와 '성령세례', '은사'와 '열매', '방언'과 '신유' 등,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는 이 책의 균형 잡힌 안내를 통해 한국교회의 성숙과 뜨거운 성령충만의 회복을 기대한다.

저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를 개척 설립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의 목자로서 바른 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고 있다. 현재 한국신학회 이사장, 세계 하나님의성회 실행위원이다.

자 최완기 목사

세인트루이스교회에서 30년 간 목회한 후, 현재 시카고에서 '4-14 윈도우'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프라미스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기독교영신상조(기독교장례전문)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기독교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 영정꽃 선택,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내역 총괄전문의 <1호 270만원 2호 370만원 3호 470만원은 가족들의 선택임>



▲ 생화사진틀(선택형)



▲ 45인승 버스



▲ 최고급 리무진



▲ 근조기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강사



조용목 목사
정책위원장

2019년 부흥사회 시무예배 및 신년하례

- 일시 : 2019년 1월 22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회장



신재영 목사
새김전교회

대표교문



조용목 목사
정책위원장

교단총회장



임웅재 목사
총회장

지도교문



김인찬 목사
증경총회장

지도교문



정부용 목사
대림별교회

회장



신재영 목사
새김전교회

상임부회장



김기진 목사
제천문교회

상임부회장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부회장



최정식 목사
순복음복원교회

부회장



김바울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2019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대표교문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직선총회장	총회장	지도교문	지도교문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회장	상임부회장	상임부회장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김상용 목사 (정주중앙순복음교회)	유봉수 목사 (은혜와사랑교회)	진동용 목사 (시소망교회)	김용택 목사 (영동제일교회)	임종담 목사 (진주순복음교회)	최광택 목사 (일산은혜교회)	이창재 목사 (진부제일교회)	김인규 목사 (은혜와광장교회)	김양인 목사 (복양제일교회)	임웅재 목사 (신정리순복음교회)	김인찬 목사 (청신교회)	정부용 목사 (대림별교회)	엄기섭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김희태 목사 (안현교회)	신재영 목사 (새김전교회)	김기진 목사 (제천문교회)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부회장	부회장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총무	상임부총무	사무국장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최정식 목사 (순복음복원교회)	김바울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임영광 목사 (행복한신교회)	오승욱 목사 (천안서복교회)	황용연 목사 (은혜와광장교회)	김병국 목사 (금신순복음교회)	정석현 목사 (영광교회)	백영자 목사 (독동순복음교회)	조병희 목사 (기정순복음교회)	김종연 목사 (은혜교회)	김건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오세준 목사 (순복음성령교회)	조은혜 목사 (순복음빛교회)	정광호 목사 (동문순복음교회)	윤혜영 목사 (순복음주전교회)	조현남 목사 (대림별교회)	김병호 목사 (순복음영복교회)	박종렬 목사 (오성사당교회)	
실무총무	실무부총무	실무부총무	실무부총무	서기	회계	감사	감사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성기찬 목사 (동문순복음교회)	김남수 목사 (빛은빛교회)	김연옥 목사 (행복한신교회)	김명주 목사 (순복음열방교회)	임형순 목사 (순복음아덴교회)	양은혜 목사 (창조교회)	한명경 목사 (은혜와광장교회)	최남성 목사 (동강순복음교회)	윤성수 목사 (진주은영교회)	권태선 목사 (순복음아은교회)	이화숙 목사 (순복음우리교회)	임영철 목사 (순복음우리교회)	홍현자 목사 (사랑과평화교회)	정환무 목사 (순복음빛교회)	서법서 목사 (가나안성원교회)	최승수 목사 (순복음스미교회)	주창민 목사 (순복음열방교회)	우광택 목사 (해미루대광교회)	
회원	회원	회원	회원															
정예스더 목사 (예수왕기교회)	조갑수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배용환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옥보에 전도사 (소망농아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교단산하 개교회 및 도시, 농·어촌, 산간벽지,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주시면 부흥사회에서 **완전 자비량**으로 부흥회를 인도해 드립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문의

회장 신재영 목사 HP : 010-7457-9768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HP : 010-3698-5764

기독교대학의 타종교 매각 시도 중단 촉구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기독교 건학 이념을 바탕으로 숭한 목회자를 배출해 온 안양대학교가 최근 재장난을 이유로 불교계 대순진리회 계열의 대진교육재단에 매각하려는 시도에 대해 본회는 기독교대학의 건학 이념에 대한 심각한 훼손일 뿐 아니라 종교 간 마찰과 분쟁의 소지가 될 이번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매각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현 안양대학교는 지난 1948년 고 김치선 박사가 서울 남대문교회에서 설립한 대한신학교의 건학 이념을 계승한 기독교대학으로 그동안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총회를 기반으로 수많은 목회자와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해 왔다.

그런 안양대가 대순진리회 계열의 대진성주회 관계자 3명을 이사로 받아들임으로써 사실상 재단 매각을 지행한 것은 하나님에 세우신 기독교대학을 타종교에 돈을 주고 팔아넘기는 후안무치한 행위로 예수



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기뻐 유대를 연상케 하는 배교 행위나 다름없다. 더구나 현 학교법인 우일재단 이사장이 교회 장로 신분이라는 사실에 비춰 볼 때 이

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신앙 양심으로나 도의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학교법인 우일학원의 기독교대학을 타종교에 매각 음모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 같은 불의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진교육재단측 이사 승인을 즉각 취소함으로써 종교 간 갈등과 분쟁 소지를 조기에 차단하는 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한다.

만일 우일학원이 이 같은 한국교회의 목소리를 끝내 외면하고 타종교에 기독교대학을 매각하고, 교육 부 또한 이를 수수방관한다면 해당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뿐 아니라 한국교회 1천만 성도들이 이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뒷돈 거래로 사학을 마음대로 매매하는 불법 부당한 행위 근절을 위해 국회를 통한 사학법 개정 등 총력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성민원 제19회 빛사랑 모임... 섬김의 삶 다짐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 5백여 명,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그리스도의 정신 실천한다

사단법인 성민원 제19회 빛사랑 모임이 지난 12월 30일(주일) 오전 10시 30분 군포제일교회(담임 권태진 목사)에서 열려 지역사회에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교계와 정계 인사를 비롯해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등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빛사랑 모임은 지역사회에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전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단법인 성민원 산하의 15개 복지기관을 섬기는 자원봉사자들과 후원자들이 한해를 결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서로를 위로 격려하기 위해 매년 12월에 진행해 온 모임으로 올해는 성민원 설립 20주년을 맞아 더욱 뜻깊은 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1부 축하의 시간, 2부 감사의 시간, 3부 나눔의 시간으로 나뉘 1부는 제일선교원 사랑반 아동들의 공연과 성민 소년소녀합창단의 합창으로 막을 열었다.

2부 감사의 시간은 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 정양균 목사의 사회로 손평업 목사(법무법인 소망 대표)의 기도과 심동섭 목사(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김지현 목사(군포시기독교연합회장), 김효종 목사(한기연 공동회장)가 나라와 민족과 지역 지도자를 위해, '성민원과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위해', '남북 통일과 신앙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각각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마리아중창단의 특송이 있는 후 성민원 이사장 권태진 목사가 '좋은 것을 심은 분들'(잠 19:17, 갈 6:7)을 제목으로 설교하고 김요셉 목사(한기연 초대 대표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권태진 목사는 설교를 통해 "성경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명령하심에 따라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 봉사과 섬기의 본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부 나눔의 시간은 서디은 청년의 사회로 성결대 음악부 채진수 교수가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이 이어졌으며 성민원 사역 20년을 영상으로 관람했다.

교회 후임자 및 임대, 매입자 구합니다

- 주 소 : 충북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124
- 교 회 명 : 대소우리순복음교회
- 현 교역자 : 정형기 목사(010-3449-4000)
- 교회 현재상황 = 성전, 교육관, 사무실, 화장실, 식당 및

- 주방, 그랜드피아노, 에어컨 3대, 냉온수기 2대, 의자, 책상, 프로젝트 1대 등 각종 성전 집기류.
- * 교회의 주변상황이나 크기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정형기 목사(010-3449-4000) 앞으로 문의 바랍니다.

뷰티서비스 자원봉사대회·어워드 시상식

월드뷰티핸즈, 자원봉사자들 초청해 위로하고 격려

국제뷰티구호개발 NGO (세월드뷰티핸즈(WBH, 이사장 정현일, 회장 최에스터)는 지난해 12월 21일 국회의원과 제5간담회실에서 2018년 한해 동안 뷰티서비스로 봉사해온 자원봉사자대표들을 초청해 "2018 월드뷰티핸즈 뷰티서비스 어워드(WBA) 시상식"을 갖고 이들을 격려했다.

사회는 최세정 이사(마로페시픽 수석감사)가 맡아서 진행을 하였으며, 김주연 이사(서경대 교수)의 기관 소개 및 연혁보고에 이어 최에스터 회장(신한대 교수)은 2018년 3월 정립이후 지금까지 서울중앙회 활동을 영상에 담아서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김신미 이사(동신대 교수)가 광주전남지회의 활동을, 이세희 지회장(경북보건대 교수)이 경북지회 뷰티서비스 활동을 보고했다. 이어서 정현일 이사장은 6명의 신임이사 위촉과 함께 방송인 조혜련, 성악가 김혜영 교수를 월드뷰티핸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번 행사의 가장 중요한 2018 WBH 뷰티서비스 어워드는 그동안 뷰티서비스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3

명의 조교와 14명의 대학생들에게 주어졌으며 헤어 및 피부뷰티서비스 분야는 권오영 이사(한성대 교수)가, 메이크업/세일서비스 분야는 김예성 이사(인신대 교수)가 맡아서 상장을 수여하였다. 또한, 정현일 이사장은 그동안 월드뷰티핸즈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큰 (주)빛과 예술로 대표 김광을 작가와 월드뷰티핸즈 조서연 사무국장에게 공로상을 수여하였다.

최에스터 회장과 세계적인 헤어 그룹(d HAIR)의 위윤미 대표는 업무협정(MOU)을 체결하고 뷰티서비스 전문가 교육훈련과보다 더 영향력 있는 뷰티서비스 활동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기로 협의하였다.

최에스터 회장(신한대 뷰티헬스사이언스학부)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의 아름다움이 빛나는 뷰티서비스를 통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2019년이 되는데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 홍보대사 소프라노 김혜영 교수(원광대학교)의 축기를 끝으로 WBH자원봉사자대회를 마치고 그동안 수고한 지원봉사자 모두에게 감사사를 전했다.



미드웨스트大, 개교 33주년 맞아

1월 14일 종로 서울사무국에서 입학설명회 가져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목적으로 1986년 미국 중부 St. Louis에 설립된 Midwest University (제임스 송 총장, 설립자/사신)는 미국의 높은 교육 장벽에 도전하여 미 연방정부로부터 대학재단법인 허가과 미 연방정부 교육부 (USDE), 대학학력 인증 기관인 CHEA와 ABHE 인증을 받은 미국 정규 종합대학교이므로 미국 연방정부가 주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교 33주년이 되는 Midwest University에서 배출된 동문은 대학 총장, 교수, CEO, 고위직 공무원, 군 고위직, 목사, 선교사, 중·고등학교 교사, 교장, 등 전 세계 60여 국에서 전문인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Midwest 항공대학은 수십 대의 실습용 비행기와 헬기를 갖추고 있으며 지난 12월 초에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국제 항공보안, 안전협회(ISA)회원 항공대학이며 항공안전, 보안 교육 회원기관으로 한국의 정부신하 헬기조종사, 항공정비사 연수 등 다양한 안전, 보안에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FAA 면장을 위한 비행훈련은 12개월 정도면 세 가지 면장을 모두 취득할 수 있으며 훈련비용도 저렴하며 비행 조종장력을 위한 다양한 전공학위 프로그램(△영 어학교 -ESL 과정 △항공대학: 항공경영학사, 국제 조종사 (항공기, 헬기) 면장과정, 항공정비, 운항사 과정 △경영대학(원)은 국제비즈니스,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석사과정은 MBA-경영, 부동산, 애셋, 공공정책과 행정학, 공공 안전관리, 글로벌리더십, 지역 개발, 휴먼 매니지먼트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상담학, 두뇌개발 영재교육 △신학대학원: 신학사, 기독교교육 학사, MDiv, DMin △음악대학-BM, MM, DMA △리더십대학원-DL과 Ph.D에서 경영리더십, 영재교육리더십, 조직 리더십, 항공리더십, 공공정책, 정치리더십)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학부설 국제연구센터(IRC)·미국비즈니스 창업센터 (USBC)를 통해 미국에서 창업하는데 미주리 주정부, 시청과 함께 창업에 대한 모든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입학문의 02-3672-4516, seoul@midwestedu로 예약하면 된다.

영성훈련원 개원예배

강사 | 피종진 목사
일시 | 2019년 1월 14일(월) 오후 2시
장소 | 대소우리순복음교회(정형기 목사)
주소 | 충북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124
위치 | 대소한양아파트 큰 길 건너 십자가종탑 보임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께 정형기 목사가 인사드립니다. 2019년도에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한국교회를 더욱 열정적으로 섬기고 함께 기도하며 신유와 문제해결, 기도응답을 위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성령으로 충만 받아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돌리기 위해 대소우리순복음교회에서 영성훈련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중 계속하여 부흥회를 개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정중히 초청하오니 함께 해 주시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밟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 막 16:17~18 -

성령치유축복성회

- 매주 월, 금 오후 2시 / 저녁 7시 30분
- 강사 | 피종진 목사 외 12명 에벤에셀부흥가사단
- 장소 | 대소우리순복음교회

- 오시는 길/동서울터미널~대소터미널 1시간소요
- 차 타시고 전화 주시면 차량대기
- 숙박가능 하오니 오셔서 여유있게 은혜 받으세요.

“간혀 있다면 돌파하라”



대상 : 19세 이상 청년 장소 : 괴산순복음교회
일시 : 2019.2.3~2.6 회비 : 무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문의 : 010-5145-3816

ENHAKKORE MINISTRY

육군훈련소와 사랑의장기기증본부 협약

현재까지 2,862명의 장병들 장기기증 희망 등록 참여해

(예)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는 지난 1월 4일(금) 오전, 육군훈련소 본청에서 육군훈련소(소장 구재서)와 생명나눔을 위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육군훈련소는 지난해 7월, 이대로 소령의 조혈모세포 기증을 계기로 부대 내에 생명나눔의 바람이 일었다. 자신을 희생하여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이 소령의 선행이 알려지자 장기기증은 물론 헌혈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가 확산된 것이다.

이후 부대는 생명나눔의 소중한 가치를 전 장병들과 함께 공유할 방법을 모색하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설명회를 요청했다.

한 달 뒤인 8월 29일, 육군훈련소의 간부 및 기간병 500여 명을 대상으로 장기기증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당

시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박진탁 이사장이 강연자로 나서 장기기증에 대한 정보와 함께 등록 방법을 안내해 이날 개인 의사에 따라 144명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했다. 첫 설명회가 끝난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된 장기기증 설명회를 통해 현재까지 2,862명의 장병들이 자발적으로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하며 생명나눔의 뜻을 밝혔다.

이러한 장병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체결된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앞으로 육군훈련소는 장기기증 설명회와 생명존중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장소와 시간을 제공하고, 본부는 장기기증 설명회와 생명존중 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파견하는 등 생명나눔 캠페인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상호 협조하게 된다.



백석대 신임 학군단장에 박장환 중령 취임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 제6대 학생군사교육단장으로 박장환 중령(학군 32기)이 취임했다.

백석대 학군단은 지난 2018년 12월 27일(목) 오전 10시 30분, 교내 백석홀 소강당에서 고경국 전임 학군단장의 이임식과 박장환 신임 학군단장의 취임식을 진행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백석대 정택현 대학혁신위원장과 육군학생군사학교 교육여단장 하영제 준장을 비롯해 권역 학군단장, 학군단 재학생, 교직원 등 내·외빈 100여 명이 참석했다.

고경국 전임 학군단장은 “이 자리에 있는 후보생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며 “군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운 가족들과 대학 구성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이임사를 전했다.

박장환 신임 학군단장은 “앞서 후보생들을 지도하셨던 고경국 단장님의 뒤를 이어 후보생들을 잘 이끌어가겠다”고 취임사를 전했다.

이날 이임한 고경국 단장은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년의 재임기간 동안 국방부 평가 ‘우수학군단 2위’, ‘육군학생군사학교 종합우수학군단 3위’ 등의 좋은 성과를 받아 대학에서 감사패를 전달받기도 했다.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전도로 목회에 새 힘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박영수 목사의 가족세트 전도를 군자교 이레교회(정향길 목사 시무)에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에 관심이 없는 목회자는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막상 전도하는 교회에서 물건을 주고, 전도용품들을 나눠주려 해도 받는 사람이 점점 없어져가는 시대입니다. 우리 예브교회에서도 사탕전도, 김밥이나 계란전도, 부침개전도, 국밥 대접 등을 하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전도해왔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가족세트 전도를 하는 박영수 목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족세트전도 강의를 듣고 점심 식사 후에 그 식당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하였는데, 그 시작이 순조롭고 또 순한 양들처럼 전도를 받는 모습이 매우 경이로웠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 동안 전도 현장에서 12명 이상이 이틀을 밝히고,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록하며, 가족을 이력까지 밝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기하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박영수 목사는 우리 예브교회에서도 가족세트 전도 집회를 해보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너무 전도하기를 소망하는 사모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뒤에도 마음의 갈등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갈등은 영적 싸움이었으며, 사단의 영이 가족세트 전도집회를 하지 못할 핑계거리를 찾게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전도집회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단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었고 어떤 면에서는 패배주의에 잠긴 것 같은 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흘러가고 전도지가 도착하여 신분에

별고, 주일 날 교회에 광고하여 전도집회에 참석하라고 하였습니다.

전도집회 당일이 되었고 박영수 목사는 감사하게도 몇 분의 전도 동역자들과 함께 와주셨으며 우리 교회의 권사님 두 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초겨울 밤 전도가 될까?” 의심스러워하는 우리를 대동하고 박영수 목사는 야간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까”(요 1:12)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영접기도를 시켰습니다. 그 후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묻고 답하는 일은 일사천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주님이 나의 배경이 되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박영수 목사와 손을 맞잡고 기도하여 전도의 능력을 제게도 부여달라 기도하여 전도의 영이 부여진 줄 믿습니다.

힘을 잃었던 목회에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전도지가 되기를 기원하며 몇 자 적어봅니다. 박영수 목사의 가족세트전도사역과 교회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하기를 기원하며, 한국교회와 교회의 부흥성장을 원하는 모든 동역하는 목회자님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예브교회에서 박치요 목사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글로벌 마케팅 리서치 기업 입소스(IPSOS) 코리아, 월드비전 통해 빈곤가정 난방비 후원금 전달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은 글로벌 마케팅 기업 입소스(IPSOS) 코리아가 전달한 후원금 10만 원을 국내 빈곤가정을 위한 난방비 지원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월드비전은 위기아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연말 난방비 지원 캠페인을 진행, 각 가정 별 필요에

따라 맞춤형 난방 패키지를 지원하고 있다. 겨울이 불, 온수보일러, 연탄, 방한복, 방풍수리작업 등 각 가정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사전 조사하여 지원한다.

월드비전은 지난해 말 서울 여의도 월드비전 본사에서 입소스 코리아 임직원들과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후원금 전달식에 참여한 입소스 코리아 김양 대표이사는 “국내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을 도울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많은 가정들이 추운 겨울을 지내는데 힘이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월드비전 나눔본부 전영순 본부장은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겨울이 후원자님들 덕분에 따뜻해졌다. 차가운 물만 나오던 집에 따뜻한 물이 나올 때, 든든한 겨울 전파가 생겼을 때 위기 가정의 삶의 질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ACTS, 2019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이하 ‘ACTS’)에서는 2019학년도 전기 신입생모집 원서접수를 2019년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다.

ACTS는 신교회를 위해 세워진 국내 유일의 학교이며, 선교지향적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대학이다. ACTS는 급변하는 대내외적 상황 속에서도 아세아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지속적으로 표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금번 2019학년도 전기모집에서는 △일본대학원(신학석사, 문학석사) △신학대학원(목회학석사, 성경강해학) △선교대학원(일반/지역선교학, 스포츠/미디어선교학) △교육대학원(상담, 교육과정, 다문화교육) △상담대학원(기독교상담, 가족상담) △복지대학원(사회복지학석사) 등 총 6개 대학원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특히, 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M.Div.) 과정은 2019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을 통하여 목회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이론과 실전신학을 집중적으로 교육함으로써 교회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배양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신학대학원 성경강해학(Th.M.) 과정은 성경의 정확한 주해와 적용을

돕고, 성경본문에 충실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 많은 목회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ACTS 입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문의전화 : 031-770-7795-6

대학원홈페이지: www.acts.ac.kr/grad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 충치 예방
2. 풍치 예방
3. 잇몸 질환
4. 혀 살균
5. 편도 보호
6. 감기 예방
7. 헛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옥금수(소금물) 홍보 상품 활용을 희망하시는 교회와 성도님께서는 500ml 20pet-30pet 단위로 보내 드립니다. 500ml 20개 들이와 500ml 30개 들이 두 종류가 있으며 500ml 1pet 당 1,000원입니다. 수령하시는 교회 또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소, 성함, 연락처를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험담

- 영등포에서 목회하고 있는 박00 목사님은 해마다 감기로 인해 불편한 일이 많았는데 옥금수(소금물)로 양치를 하고난 후 감기도 걸리지 않고 입냄새도 사라져서 감사하다는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 부산에 사는 권00 권사님은 풍치로 늘 음식 먹기도 불편했는데 옥금수(소금물)로 양치하고는 많이 좋아져서 감사하다는 재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20개들이 20,000원
30개들이 30,000원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9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 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 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ASSEMBLIES OF GOD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2019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학장 한 명 점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581-0198
- e-mail : yhsbs3927@hanmail.net



(학장 김 양 인 목사)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학장 오 일 선 목사)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man@hanmail.net



(학장 김 상 용 목사)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ASSEMBLIES OF GOD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초대시

이제인 창로 // 은혜와진리 교회

염려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홀로 걷는 좁고 험한 길에서,
힘들어도, 병들어도, 지쳐서 곤해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에서 곤함을 타하지 말며, 늦은 비의 은혜를
빗장을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며 소망으로 길을 가며,
만민을 다 모아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늘 위에 떠서도, 산 위에 올라서도,
한 바다에 배 띄워도
그 사랑 그 은혜 어찌 그리 큰지요
말로 다 못한 감탄이 가슴만 찡뭉칩니다.

영광 받으소서, 내 영혼에 단비가 되신 주님,
영롱한 이슬같이 성령님이 오십니다.

솔바람도 불어와 축복하고 갑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주님.
천국 문이 열리고, 황금길 가기까지,
내 삶의 전부.
.....
숨소리조차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따뜻했던 남편의 마지막 봉사, 장기기증이 됐네요.”

고성호 안수집사 장기 · 조직기증으로 수십명의 생명 구하며 생을 마감해

지난해 12월 28일 울산대학교병원에서故 고성호 안수집사(49세, 경북 포항, 남)의 뇌사 장기기증이 이루어졌다

고씨는 뇌사 시 기증할 수 있는 장기를 모두 기증해 9명에게(심장, 간, 폐 2개, 신장 2개, 췌장, 각막 2개) 새 생명을 선물하고 세상과 작별했다.

12월 22일, 고 씨는 한 모임에 참석했다가 집으로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 고 씨를 보지 못하고 달려오던 한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 즉시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뇌출혈이 극심해 모든 조치에도 불구하고, 결국 뇌사 상태에 빠졌다.

지난 2007년 아내 김경미 씨와 함께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를 통해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한 고 씨는 평소 “세상을 떠날 때 장기를 꼭 기증하

겠다”며 “화장터에서 순식간에 재로 변하기보다는 쓸 수 있는 몸의 일부를 나눠 생명을 살리는 일을 꼭 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아내가 운영하는 영수화원과 피아노화원을 생명나눔 가게로 등록하며 장기기증 홍보활동 및 장기부전 환자들을 위한 후원에도 꾸준히 참여해왔다.

이에 고 씨의 뇌사 판정 앞에 아내 김경미 씨는 바로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연락을 취했다. 장기기증의 절차 및 자세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가족들은 고인의 뜻을 이루어주고자 장기기증을 결정했다. 평소 매우 건강했던 고 씨는 장기 9개를 모두 기증했고, 부산대학 교양산병원에서 조직까지 기증하며 수십 명의 생명을 살렸다.

2018년의 마지막 날 오전, 고인의 발인이 이루어

졌다. 장례식장에는 ‘세상에 빛을 남긴 고귀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라는 근조기가 놓여졌다.

고 씨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가족들은 “장기가 환자들에게 잘 이식됐다는 이야기를 의료진으로부터 전해 듣고, 정말 감사했다”며 “이식을 받은 환자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평소 포항제일교회를 출석했던 고 씨는 농아부에서 오랫동안 장애인을 섬기는 사역을 해왔고, 운영하던 학원 학생들과 함께 요양시설에도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가는 등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 왔다.

평소 나누는 삶을 살아왔던 고 씨의 장기기증 앞에 아내 김 씨는 “남편의 마지막 봉사가 장기기증이 됐다”는 말을 전했다.

사설

국가안보를 위한 불퇴진의 기도

지난해 한반도에는 핵 폐기를 위한 다양한 목소리와 이벤트들이 화려하게 이어졌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 회담과 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 등이 치러졌지만 연말 결산에서 우리에게 돌아온 건 북한의 비핵화는커녕 오히려 핵무기 양산 소식과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해임,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 주한미군 감축 등의 한반도의 안보전선에 큰 위협만 떠 앉게 되었다.

북한의 신년사 핵심은 검증도 안 된 비핵화 관련 선행조치를 내세워 이에 상응한 미국과 한국의 대가를 청구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이에 상응한 조치가 없으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핵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하라는 압박인 것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지면을 통해 언급해 왔지만,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정상 간의 수차례 대화 과정을 거치면서도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으로 인한 유엔의 제재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폐기를 실행에 옮기면 진정한 핵폐기가 확인되는 대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는 유엔의 보증 아래 해제되는 것이다. 이것은 국제사회가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은 실질적 비핵

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에 대해서는 연합훈련 완전중단, 전략자산 반입 중단 등 한·미 동맹을 흔들려는 전략전술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마치 우리에게 선처를 베풀듯이 개성공단 가동 및 금강산 관광 허용이라는 식의 입장을 밝혔다.

일련의 모든 문제가 북한의 핵무기 폐기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정부는 “철도·도로 협력 전진 속도는 민족의 의지에 달렸다”, “남의 눈치를 보며 휘청거린다”.. “냉면 목구멍”에 이어 계속되는 북한의 적반하장 지적을 듣고도 그저 저자세로 눈치만 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우리가 지켜내야 한다. 한미동맹 60여년의 역사에서 미국은 한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했다. 안보의 일부는 미국이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경제성장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담보하는 ‘생명줄’이자 압축성장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기적적으로 아시아의 빈국 대한민국과 미국의 한·미 동맹을 이끌어낸 이승만 전 대통령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한국교회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합심하여 기도했다. 2019년 한 해 한국교회는 국가의 안보를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불퇴진의 기도를 해야 하겠다.

특정종교인들의 병역거부

지난해 5월 한국교회언론회가 한국갤럽을 통해 여론 조사를 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특정 종교로 옮겨갈 의향이 있는냐는 질문에 전체적으로는 12.4%가 “그렇다”고 답했으나, 군대를 가야 할 연령대인 19~29세 사이에서는 21.1%가 “그렇다”고 답하여 해당 사항에 접한 젊은이들은 특정종교에 의한 병역거부의 수단으로도 충분히 악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그런 가운데 최근 국방부에서는 용어 정의하기를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말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규정하자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은 이에 반발하는 논평을 내며 항변하고 있다.

이번에 국방부는 정확한 용어 결정을 제대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에 반발하는 것은, 국민들의

생각이나 정서나 또 대법원이 ‘정교분리원칙’을 위반한 것을 지지함으로 결국 국민들의 불만을 증식시키고 정당하게 회생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을 마치 비양심적인 사람들로 몰아가는 고약한 일을 이어나가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정부는 일부 급진적 진보 시민 단체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용어를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로 확정짓는 것이 맞고, 정말로 특정종교인들의 병역거부가 ‘양심’에서 발로한 것이 맞다면 대체복무 기간이나 근무지가 어떻게 되든지 불만 없이 받아들여야 그 진정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법을 만든다는 일부사람들과 ‘뺨뺨’을 쓰는 사람들에 의하여 오히려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와 함께 명예가 훼손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법보다도 우선 신앙심을 들먹여제발 양심을 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정책위원장 조응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배성환

●연락처: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귀한 헌신으로 시골마을 교회가 세워지도록...

전남 무안군 해제면 순복음은혜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름이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바닥에 물이 차올라 성전 재건 축이 필요합니다. 감사하게도 전남 무안갯벌에서 염전을 하는 안수집사님께서 건축재정을 위해 ‘무안 천일염’으로 헌신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무안 천일염’의 판매수익금을 새 성전 건축에 보태어 만민이 예배하는 성전을 만들고자 합니다.

성전 건축에는 아직도 많은 도움과 후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귀한 헌신으로 시골마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기도와 함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만풍염전에서 생산한 100% 무안갯벌 천일염으로 각종 미네랄과 유기물이 풍부 한 친환경 갯벌입니다. 갯벌염전은 청정해역의 바닷물을 끌어들이고, 햇빛과 바람에 의해 자연의 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품질이 매우 우수하며 안전합니다.



구입문의 010-8060-1141

계좌 농협 628-02-097358 예금주 왕상엽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말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해가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기들을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와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T 책 등-군생활

속에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신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로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생명과 복을 택하십시오!”

2019 신년축복기도성회... 하나님을 앙망하며 믿음과 순종의 생활 다짐, 은혜와진리교회

은혜와진리교회 신년축복기도성회가 1월 1일(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각 성전에서 동시에 드려져 갖가지 소원을 가지고 성회에 참석한 많은 성도들이 기도응답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신년의 하루하루를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생활에 전력하기로 굳게 다짐하였다.

이날 성회는 장로성가단, 율로게오 관현악단, GNTC

합창단과 GNTC 오케스트라의 은혜롭고 감동적인 찬양으로 시작되어 이상규 목사(고신대 명예교수)가 구약 성경 모세오경에 관한 신학적 해설을 통해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의 신실함을 강조하여 말씀해 주었다.

이어서 은혜와진리교회 당회장 조용목 목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능을 강조하며 기도회를 인도하였다.

성도들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주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되도록, 굳건한 한미동맹과 국가안보를 위해, 한국교회의 시대적 사명 감당과 평안을 위해, 해외 선교지 선교사들과 선교협력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의 목표와 성도생활의 목표를 위해, 가정복음화

와 성령충만을 위해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조용목 목사는 신 30:19, 20 말씀을 본문으로 '생명과 복을 택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선택의 자유를 선용하는 것 중에 특히 생각과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경에 합치되는 생명과 복에 대한 생각과 말을 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여 습관이 되게 할 것을 당부하였다.

성도들은 받은 말씀을 준행할 것을 다짐하고 각자의 여러 가지 계획과 소원이 주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신년이 되기를 비리며 간절히 기도하였고, 조 목사는 성도들이 건강하고 생활이 안정되고 발전하여 더욱 주의 일에 헌신하고 주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다량하고 풍성하게 체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년이 되도록 축복해 주었다.



<http://agpgs.aogk.org>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9학년도

사)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자질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 Master of Ministry)	2년 (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②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③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④ 추천서(소정양식) 1부
- ⑤ 반명함판 사진 2매
- ⑥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⑦ 가족관계증명서(출인사실관계) 1부
- ⑧ 목회학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③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④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j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50,000 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②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9:30분~ 오후 4:40분 까지 진행한다.
- ④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자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홈페이지 : www.agtc.or.kr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9학년도

사)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써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ASSEMBLIES OF GOD